

# 4년 한우물 벤투의 독심...韓 축구 새 역사

4년 동안 '빌드업 축구'란 한 우물만 판 파울루 벤투 감독의 독심이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2018년 8월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벤투 감독은 같은 해 9월 코스타리카와 데뷔전부터 확고한 축구 철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른바 '빌드업 축구'로 요약된 그의 철학은 최후방 골키퍼부터 차근차근 패스를 전개해 나가며, 최대한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다가 상대 진영에서 빠른 패스로 득점을 노리는 패턴을 추구했다.

이는 당대 세계 축구계를 호령하던 브라질과 스페인, 독일 등 강팀들이 즐겨 사용한 전술이기도 하다.

다만 이는 세계 축구계에서 여전히 '언더독(스프츠 경기에서 약팀)'으로 통하는 한국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의문 부호가 따랐다.

냉정히 볼 때 우리보다 강팀과 만나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벤투가 고수한 '주도하는 축구'가 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기는 여럿 있었다.

승승장구하다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우승에 도전했으나, 개최국 카타르의 실리 축구에 밀려 8강에서 탈락했다.

점유율만 높은 비효율적인 벤투 축구에 실망한 팬들은 그를 경질해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16강 4강 신화 2002한일월드컵 포함 역대 세번째 16강



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경기, 파울루 벤투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사태로 A매치가 크게 줄면서 사그라들었던 비난 여론은 지난해 3월 한일전 0-3 완패 후 재점화됐다.

10차전으로 치러진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에서 8경기 만에 본선행을 확정된 뒤에도 벤투 감독을 향한 여론은 나아지지 않았다.

기록 있는 빌드업 축구의 한계는 물론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

아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을 들어야 했던 선수 선발 원칙도 도마 위에 자주 올랐다.

하지만 벤투는 독심으로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밀고 나갔다.

최종예선을 거듭하고, 본선이 다가오면서 빌드업 축구의 완성도는 높아졌고, 큰 변화 없이 4년을 이어온 스쿼드는 위기 때 유연함을 발휘했다.

부상으로 조별리그 1, 2차전에 결

장한 황희찬(울버햄튼)의 빈자리는 나상호(서울), 정우영(프라이부르크) 등이 메웠고, 16강 운명이 걸렸던 포르투갈과 3차전에서 김민재(나폴리)의 공백을 권경원(감바오사카이) 완벽 대체했다.

또 대회를 앞두고 주전 골잡이 황의조(울림피아코스)가 부진해지자 신에 조규성(전북)을 과감하게 기용해 월드컵 첫 멀티골이란 결과를 만들었다.

이는 4년간 꾸준히 다져온 선수단 운영이 빛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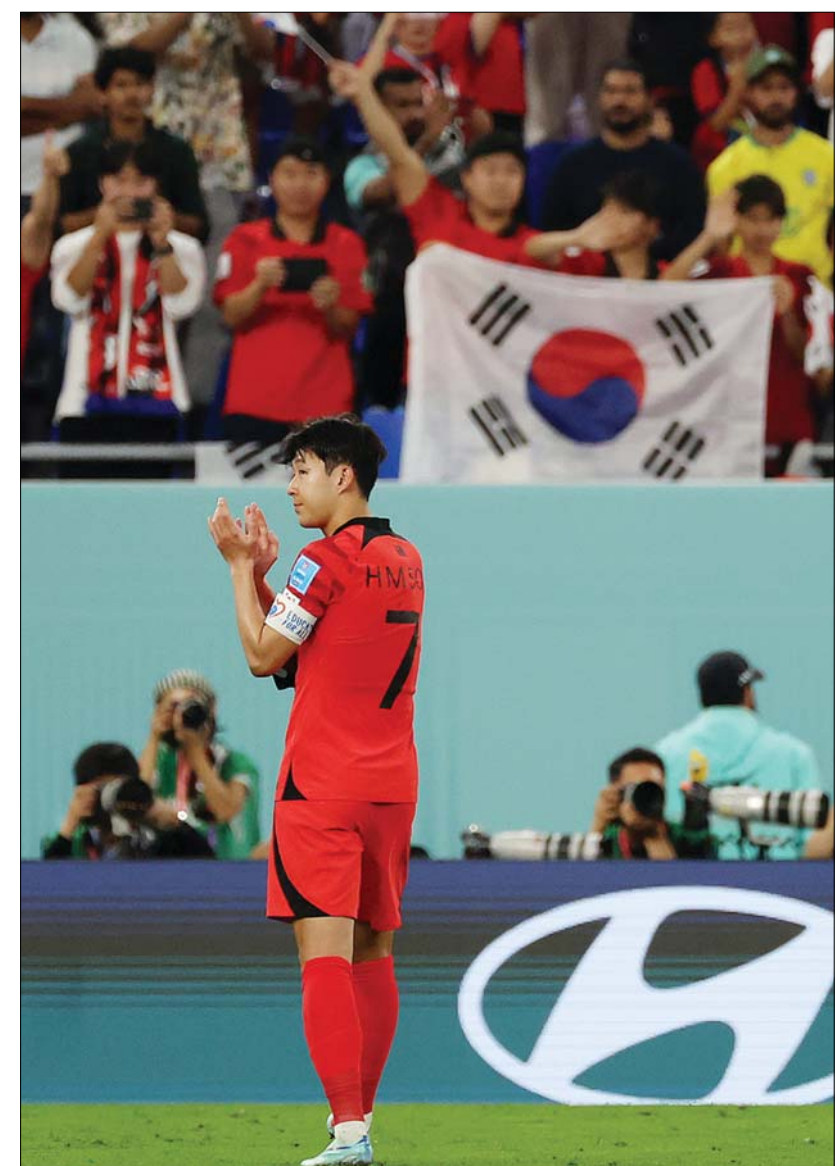
세계적인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 마드리드) 등을 앞세운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황인범(울림피아코스) 등을 중심으로 대등한 중원 싸움을 펼쳤다.

가나와 2차전에서도 0-2로 끌려가다 이강인 등을 투입해 전략을 바꿨고, 2-2까지 따라붙는 저력을 보였다. 비록 승리를 놓쳤지만, 이전 월드컵에선 볼 수 없는 뒷심이였다.

4년간 호흡을 맞춰온 코치진과 선수들은 흔들림 없이 우리만의 축구를 구현해냈다.

물론 '우승 후보' 브라질과 16강전 완패는 여전히 세계 축구 강국과의 좁혀야 할 거리가 많다는 걸 재확인한 무대였다.

/뉴스



손흥민 월드컵 여정 마무리 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경기, 한국 손흥민이 브라질에 1-4로 패한 뒤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

## '유럽행' 의욕 활활...조규성 "더 도전하고 싶다"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2골 기록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최종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2대 1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조규성을 비롯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떠오른 조규성(24·전북)이 더 넓은 무대를 향한 꿈을 드러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1-4로 졌다.

이로써 한국의 이번 월드컵 도전은 16강에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거둔 수확으로 조규성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달 24일 조별리그 1차전 우루과이전에서 교체 투입돼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조규성은 잘 생긴 얼굴로 단번에 스타로 떠올랐다. 출중한 외모 만큼이나 뛰어난 실력도 발휘했다.

조규성은 지난달 28일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멀티골을 터뜨렸다. 한국 선수가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한 건 조규성이 처음이다.

한국 대표팀의 차세대 골잡이로

확실한 인상을 남긴 조규성은 "당연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이번 대회는 그런 마음뿐인 것 같다"고 대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한 꿈도 커졌다.

조규성은 "남미, 유럽 선수들과 부딪혀 보니 더 도전해보고 싶다"며 "더 성장해서 이런 선수들과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유럽행을 향한 의욕을 드러냈다.

첫 월드컵은 조규성에게 더 강한 동기부여를 남겼다. 조규성은 "4년 뒤가 더 기대된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어보니 흥분되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며 눈을 빛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는 벤투 감독은 선수들에게 "4년 동안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너희는 대단한 선수다. 4년 동안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 백승호 중거리 슛 "엄청난 골" 극찬

BBC 해설위원 "알리송조차 막을 수 없었다" 평가

백승호가 월드컵 데뷔전 골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국은 16강에서 월드컵 도전을 마쳤지만 백승호의 골이 선수들의 투혼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백승호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브라질 간 16강전에서 후반 후반 중거리 슛으로 브라질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날 후반 20분 벤투 감독은 후반 황인범을 불러들이고 백승호를 투입했다. 백승호는 후반 31분 아크 정면에서 흘러나온 공을 정확하게 원발로 정확히 때렸다.

경기는 브라질이 4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여준 만회골이었다.

백승호 중거리 슛에 영국 공영방송 BBC도 극찬했다. 크리스 서튼 BBC 해설위원은 "엄청난 골이었다"라며 "25야드(약 23m) 밖에서 때린 슈팅은 알리송조차 막을 수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백승호는 이날 경기를 마치고 인더뷰에서 "최선을 보여주려 했다"며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돼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컸기에 16강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벤투 감독은 백승호에게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을 주문했다. 백승호는 "감독님께서 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며 "최대한 차분히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